



조 현 성 수석부장
(주)하림

삼계 사육 준비는 5월, 초복 삼계탕이 벌써부터 그림다

뉴질랜드에는 3가지 키위가 있다고 한다. 첫째 키위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참다래' 즉, '키위'다. 둘째 키위는 남자의 애칭으로 '키위'라고 부른다고 한다. 셋째 키위는 현재는 날개가 퇴화되어 날지 못하는 새 '키위새'가 있다. 왜 키위새는 날지 못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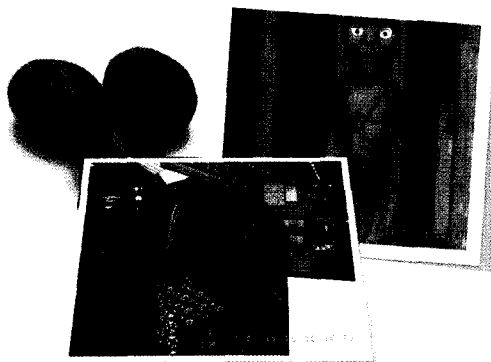
뉴질랜드를 가본 사람들은 해안선에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게 되는데, 해안가 어디를 가도 풍부한 해물을 아무 곳이나 먹을 만큼 자원이 풍부하다. 키위새는 이런 환경에서 날지 않아도 먹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어 날개가 자연적으로 쓸모 없는 기관으로 전락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날개는 퇴화되어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

닭은 날 수 있을까?

예전에 TV에서 토종닭이 힘차게 나는 야생성을 보았다. 닭도 조류이므로 그들의 선조들이 창고에 날았던 것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

1. 서론

조류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조류들은 하늘 위에서 먹이를 찾도록 진화하여 뼈를 가볍게 하고 날개 및 내부에는 기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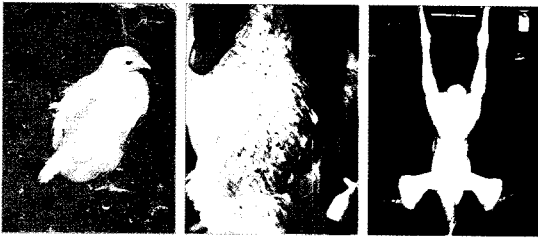


만들어 가볍게 한다. 조류의 선조는 천적을 피해 하늘을 높이 날면서 먹이를 찾기 위해 '시각'이 발달했다는 점이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닭들도 시각이 발달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아주 민감하다. 특히 삼계라는 품종은 산란계 계통의 모계를 사용하여 육용계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잘 놀란다. 특히 증체가 느리고 가벼워 한 마리가 놀래거나 외부 침입자를 발견하면 전체가 '파도를 탄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한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는 자연 밀사와 서로 압사가 일어나기까지 하여 스킨에 상처를 주고 등의 깃털이 탈락되어 스크레칭이 발생하곤 한다.

〈표 1〉 삼계에서 등 비품이 발생하는 원인

원인	근본 원인	대책	평가
높은 조도	밝은 색의 원치커튼	어두운 색 원치커튼으로 교체	
	짧은 계사 처마 길이	차양막 설치	
	남북방향의 계사배치	차양막 설치	
	너무 밝은 점등 프로그램	5lux 이하의 조도관리	
높은 사육밀도	100수 이상/평	80~90수/평	
	계사 내 햇볕유입으로 인한 닭의 몰림	차양막 설치	
환기불량	계사간 거리가 너무 좁음	적절한 환기팬 설치	
	환기팬 부족	적절한 환기팬 설치	
부적절한 영양섭취	장염, 콕시듐 등 소화기 질병	항생제 및 콕시듐 클리닝	
	사료 내 마이코톡신	콕신흡착제 사용	
관리자의 과격한 움직임	삼계의 특성 이해부족	사양관리 지도	



등 비품의 발생

2. 본론

햇살 가득한 5월이 왔다.

작년에 초복 기점에서 삼계에서 등 불량¹⁾이 많이 나와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금년에도 이런 피해가 예측되고 있고 많은 농장이 문제가 발생할 때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고자 하지만, 항상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시설 개선이 되지 않아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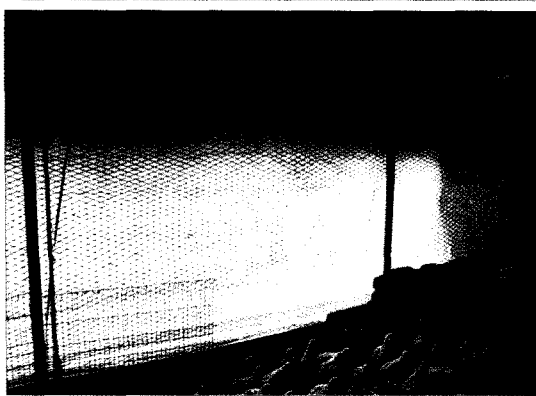
준비되지 못한 농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등 불량에 대한 피해 원인과 그 대책을 알아보고, 5월 삼계 사육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간을 내어 농장을 주변을 돌아보고 간단한 투자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방지해보자.

삼계에 등 비품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5가지 중요한 원인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들이 세분되어 있어 이 모든 문제를 평가해 보고 대책을 세워 보자.

가. 시설 개선 대책

삼계는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설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삼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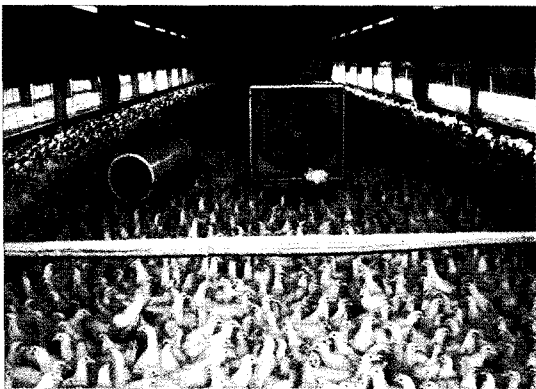


밝은 색



어두운 색

유창계사의 원치커튼은 청색 또는 붉은 색으로 해야 한다.



직사 광선이 계사에 유입되어 비품 발생이 우려되는 농장 사례

는 특성상 활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약간 어두운 환경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부분 삼계 농장들이 유창계사이며, 시설이 열악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한 여름 계사의 조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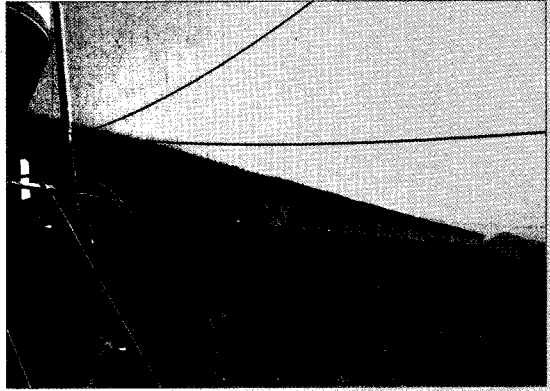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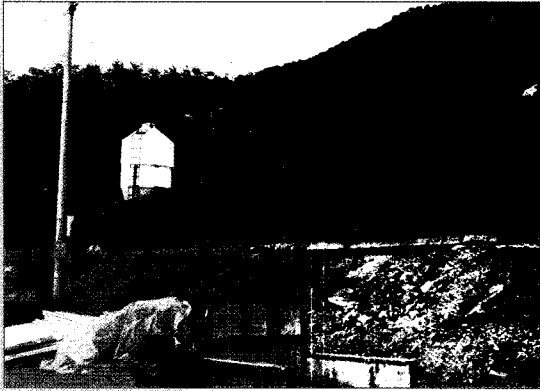
1) 계사 원치시설의 개선

유창계사는 측벽 원치를 흰색보다는 청색이나 붉은색 원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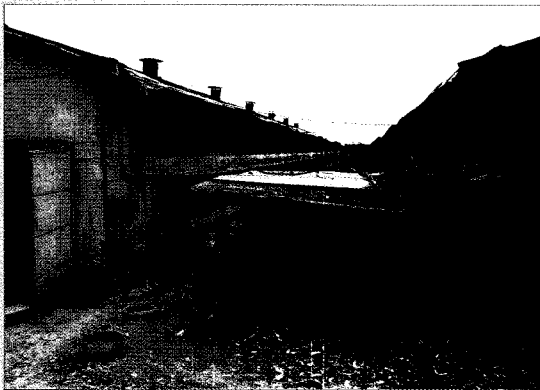
도 차광막을 설치하여 직광이 계사로 들어오지 않도록 설치하여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차광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눈가림식 방법은 계사 환기를 막고 더욱 피해를 키울 수 있다.

2) 높은 사육 밀도

여름철 입추 밀도는 농장 환경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비수기에는 대체적으로 80~90수 정도 입추하다가 병아리가 많이 생산되



차광막을 잘 고정하여 그늘 효과를 개선한 농가 사례



주변 환경이 비품이 우려되는 부적절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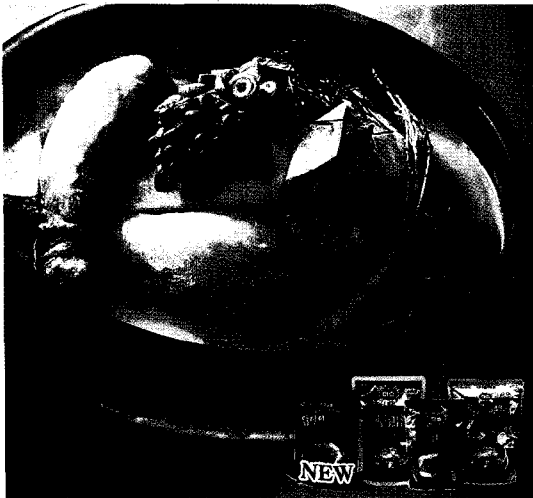
어 불가피하게 입추를 하게 될 때 밀사가 되기도 하고, 출하하는 시기를 놓쳐 밀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계사에 직사광이 들어와 부분 밀사가 발생해 피해를 키우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환기 불량 및 혹서 대책 불량

여름철에는 환기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환기를 선택하여 각자 농장에 맞는 환기 방법을 찾아서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만약 혹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료요구율이 떨어지고 삼계 사육에 치명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다. 요즘은 삼계 사육농장도 무창계사가 많이 이용된다.

무창계사는 삼계사육의 가장 좋은 방법인 듯하다. 조도를 조절할 수 있어 예민한 삼계



건강 보양식 '삼계탕'

사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유창계사에서 닭을 키우는 분이라면 릴레이 환을 설치하여 충분한 환기를 해야 좋은 사료요구율을 얻을 수 있다.

4) 부적절한 영양섭취와 질병

부적절한 영양 섭취는 카니발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오염된 사료나 변질된 수질은 설사를 유발하거나 콕시듐 같은 소화 장기에 피해를 주고 계사 바닥이 질어짐으로 인해 환경을 악화시켜 등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5) 기타 주변 소음 문제점

계사주변 소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변에 많은 소음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필자가 알고 있는 익산 양계장은 기차가 계사 옆으로 지나가는데 철도청 안전 의식으로 매일 닭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런 외부 소음에 노출된 계사는 음향시설을 어린 시기부터 노출하도록 하여 병아리 입추부터 소음에 적응토록 하면 효과가 있다.

또한 대부분 농가들이 닭의 사체 처리와 외부인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계사주변에 개를 사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릴 때 병아리들이 개 소음이나 외부인 소음에 놀란 경험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패닉 상태까지 가며, 많은 피해를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경험한다.

3. 결론

삼계탕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우리나라는 1억수 이상 삼계가 사육되고 있고 삼계탕은 한식 문화에 적합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삼계탕은 가금분야에서 수출이 증가하는 효자 상품이기도 한다. 따라서 삼계 사육하시는 사장님들이 진정한 가금산업의 주인공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농장의 환경은 부끄럽지 않도록 재정비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동물복지에 맞도록 사육하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삼계를 만들어 보자.